TEN ROOMS OF THE MIND

MADNESS

Excess



GILLETTE의 광기

과잉

마음의 열 개의 방

우리 각자가 한 번도 고른 적 없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다.

그 집에는 주소가 없다. 어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. 그런데도 우리는 그곳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 본 어떤 장소보다 더 잘 안다. 그 안에는 열 개의 문이 있다.

어떤 문은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매일 연다.

어떤 문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척하며 잠가 둔다.

그리고 우리가 직접 짓지 않았는데도 어쩐지 우리 안에 지니고 다니는 방들이 있다.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.

선반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심리학 교본도 아니다.

이것은 그 열 개의 방을 하나씩, 자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온 한 남자의 기록이다. 그리고 그는 이제 어깨에 몇 해를 더 얹은 채, 그 방들을 자신이 겪은 그대로 묘사하려 한다.

열 개의 문.

나는 그 문을 모두 열었다.

어떤 문은 호기심으로.

어떤 문은 마지못해.

어떤 문은 되돌아가기에 이미 너무 늦었을 때에야.

이 방들이 낯익게 느껴진다면, 그것은 이 방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 아니다.

그것은 깊은 어딘가에서, 이 방들이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기 때문이다.

Ferdinando

광기 — 과잉

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.

한 번이 아니었다.

때로는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해서.

때로는 내가 너무 많이 느껴서.

그리고 때로는 그저 내가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보았기 때문에.

시간이 지나며 나는 광기란 흔히 우리가 분류할 수 없는 것에 붙이는 딱지라는 것을 깨달았다.

그러나 지나친 감수성에서 태어나는 광기도 있다.

지나친 물음에서.

깊이 없는 표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.

광기는 생각이 언어보다 더 빨리 달리는 방이다.

감정이 한꺼번에 도착하는 곳.

마음이 제 문을 닫을 수 없는 곳.

그 방을 지나간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은 채로 나오지 않는다.

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.

그리고 한번 본 것은 보지 않은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.

많은 이들은 광기가 지성의 반대라고 믿는다.

나는 확신하지 못한다.

때로 둘은 가까운 친척이다.

때로 광기는 마지막 한계에 다다른 지성이다.

더 이상 담아 둘 수 없는 지점.

너무 많은 연결을 보는 곳.

너무 많은 의미를.

한꺼번에 너무 많은 현실을.

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, 언어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.

오직 몸짓만이 — 혹은 침묵만이 — 불완전한 번역자로 남는다.

Ferdinando